

'금남로 가는 길' 열다섯번째 이야기

광주일보신춘문학회 작가 25명, 시·소설·동시 등 발표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이 신작을 끝낸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5호가 나왔다.

광주일보신춘문학회(회장 윤삼

현·이하 문학회)가 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25명의 문학회 작가들이 시, 소설, 동시, 동화, 논픽션 등을 발표했다. 강윤미·김인숙·노창수·박

록담·박문재·이수행·이천만·정려성 시인이 개성 넘치는 신작시를 수록했고, 송재진씨는 따뜻한 동심을 담은 동시를 선보인다.

또 소설가 김후량·박형구·손병현·양원옥·오윤주·주원규·차노휘·홍광석씨는 냉철한 시선으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풀어냈다.

동화작가 김옥애·박소명·박찬섭·안영우·윤삼현·정대연·정혜진·한은경씨는 교훈과 감동이 담긴 동화 작품을 실었고, 천정치씨의 논픽션도 곁들여졌다.

이 밖에 문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광주일보가 수여하는 제7회 광주일

보신춘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원화씨의 '해 저무는 불날'과 심사평, 수상 소감들이 실렸다.

노창수·이승우·윤삼현씨 등 광일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수상작으로 뽑힌 이씨의 '해 저무는 불날'에 대해 '돈과 허영과 성적 욕구에 빼빼한 통속적인 중년 남자의 치부를 시니컬하게 드러낸 소설이다'고 평했다.

또 지난해 신춘문예 당선돼 신입

회원이 된 강혜원(시)·정영효(소설)·안수자(동화)씨 등의 당선작과 심사평 등도 책에 담겼다.

윤삼현 회장은 "왜 글을 쓰는가라는 문제보다 왜 작가가 되었느냐는 문제에 집착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평생을 글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작가의 엄숙한 현실을 되새겨보자"고 말했다.

〈전일출판·1만1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ju.co.kr



청소년 위한 '광주창의예술학교' 만든다

문화재단, 사업계획 발표... 전통문화관 운영

총 예산 124억... 올 예술단체 지원금 21억원



재단은 올해도 '페스티벌 오! 광주'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된 '연의 노래'.

▲공연장 상주사업 강화

올해 지역협력형 사업과 문화예술활동 사업 등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21억 5800만원으로 지난해

재단은 하반기에 구성됐던 '꿈꾸리 오케스트라'는 올해 확대편성된다. 광주지역 저소득층 어린이 33명으로 구성된 '꿈꾸리 오케스트라'는 올해

구성원을 늘리고,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분야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기존의 문화바우처와 여행

바우처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 워크

숍'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교육, 복지 사업 확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주창의예술학교'를 신설한다.

광주시 5개구에 한곳씩 설치되는 '광

주창의예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진행될